

A Cree Initiative

크리 원주민 성경번역 운동

캐나다 크리 원주민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말로 전해지도록 돕는 프로젝트



글: 드웨인 쟁키 Dwayne Jenke

사진: 나타샤 라미레즈 Natasha Lamirez

위클리프 사역자 빌 안세위치즈 Bill Jancewicz와 원주민 사역자 루쓰 키체케시크 Ruth Kitchekesik이 온타리오 주 북부 킹피셔 레이크 Kingfisher Lake에서 낚시를 하며 얼어붙은 광활한 호수를 바라보고 있다.

빌은 룯을 포함한 오지-크리어 Oji-Cree 성경번역 팀을 훈련시켜 팀이 자기 언어로 성경번역 하는 것을 돕고 있다. 위클리프 캐나다와 캐나다 성서공회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성경 번역을 위한 조력, 훈련,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들 훈련을 위한 워크숍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오지-크리어 번역 팀의 일원인 십보라 마마과 Zipporah Mamakwa는 다른 번역 팀 멤버들에게 자기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나누었다.

킹피셔 레이크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부드러운 어조로 자기 부족의 원로 한 사람이 오지-크리어 성경번역 프로젝트에 대해 자신에게 한 말을 전했다. 그는 한 밤중에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이 성경번역 프로젝트가 계속되길 격려하고 싶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놀랍고 힘 있는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마을의 원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지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십보라는 동료들에게 계속 말했다. “그 원로는 제게 이 말을 다른 번역 팀 멤버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능력 있는 일을 이 땅에 우리 민족에게 할 것이다.’”

이 마을 원로가 꿈을 꾸고 한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절대 과장이 아니다. 수 백 년 전에 이미 크리 원주민들을

위해 선교 사역과 교회의 사역이 이뤄졌음에도, 이제서야 이미 번역된 말씀의 재간행, 진행 중인 성경 번역의 완성, 새로운 성경번역 프로젝트의 시작 등이 지역 원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 원주민 성경번역 운동은 알버타 주에서 온타리오 주에 이르는 광활한 대평원에 흩어져 있는 100,000명 이상의 크리 원주민들을 섬기는 프로젝트이다. (10쪽의 지도 참조) 이들을 다섯 개 언어 그룹으로 나누는데, 북부 알버타 크리어 (Northern Alberta Cree, 20여 개 공동체), 대평원 크리어 (Plains Cree, 70여 개 공동체), 우즈 크리어 (Woods Cree, 20여 개 공동체), 스웬피 크리어 (Swampy Cree, 20여 개 공동체), 오지-크리어(Oji-Cree, 12 개 이상의 공동체) 등이다. 이 언어 그룹들은 북미 원주민들의 소수 언어 그룹들 중에 가장 크고 자생력 있는 언어 군으로, 서로 유사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원주민의 신앙은 원주민의 언어로

이 성경번역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원주민 언어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크리 원주민 성경번역 운동은 이 다섯 개의 크리 언어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원주민으로서 캐나다 성공회의 주교인 마크 맥도널드 Mark McDonald는, 어떤 원주민의 언어에서든 성경번역이 진행되는 걸 보기 원한다.

맥도널드 주교는, 많은 원주민 공동체 안에 활발한 기독교 신앙이 자리잡고 있지만, 가난과 여러 세대에 걸친 억압적인 동화 정책(원주민 기숙사 학교의 폐해) 등으로 인해 많은 곳에 소위 “오염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것들이 북미 원주민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캐나다 내의 많은 원주민들이 원주민 기숙사 학교에서의 나쁜 경험 때문에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손상되어 있다고 한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그 나쁜 경험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분리해 내고, 원주민들의 삶과 공동체 재건에 주님을 믿는 신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그들의 모어로 된 성경이라고, 맥도널드는 강조한다.

“원주민 신학은 원주민 언어로 되어야 합니다. 원주민 언어의 갱생과 생명력 있고 역사하는 믿음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하려면, 난 곳 언어로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각자 태어난 곳의 모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진리가 교회 기초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말’로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맥도널드 주교는 캐나다 내 모든 주요 원주민 언어에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모어로 된 성경번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단언한다.

현지인 스스로 결정한 우선순위들

지난 2014년 6월 중순, 사스카치완 주의 프린스 알버트 Prince 2



캐나다 원주민 성공회 전국 주교 마크 맥도널드. 그는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들이 잘 훈련되어 자기 민족에게 모어로 된 성경을 전해 주고, 자신들의 교회가 토착적인 교회가 되도록 해주길 바라고 있다.

Albert에서 크리 원주민 대표들과 함께 위클리프 사역자들과 캐나다 성서공회 사역자들이 모였고, 맥도널드는 이 모임에서 크리 성경번역 운동의 우선적인 목표들이 세워지도록 도왔다.

예전에 위클리프 사역자로 있다가 성서공회에서 성경번역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마이클 리치 Myles Leitch는 이 모임의 목적이 참석한 원주민 리더들에게서 어떤 목표가 이뤄지길 원하고, 그것을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듣는 것이었다고 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내 어떤 일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원주민들) 스스로 ‘우리는 우리 말로 된 성경을 원합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 교회 지도자들은 위클리프와 캐나다 성서공회에서 원어인 성경번역자 워십을 포함한 기술적인 훈련과 도움 주기를 요청했고, 성경번역 자문을 요청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사 빌과 노마 진 Norma Jean 부부는 그런 노력으로 지금까지 두 번의 워십을 개최했고, 킹피셔 레이크 지역을 방문에 현장에서 직접 훈련을 제공하기도 했다. 안세위치스 부부는 28년 동안 퀘벡과 뉴브런스윅 접경지대에 있는 나스카피 원주민과 동역한 경험이 있다. 나스카피 원주민들도 크리어가 속해 있는 알공윈 언어군에 속한 언어를 사용한다. (2013년 봄호 Word Alive 참조)

벌써 신약 성경 번역을 마친 나스카피 Naskapi 원주민들은 지금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크리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 워십에 동참하고 있다. 나스카피 원주민 대표들은 크리어 성경번역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자신들의 경험에서 얻은 통찰력들을 그들과 나누고 있다.

빌 선교사는 나스카피 원주민 사역자들이 이 워십에서 더 많이 기여하길 기대한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훈련자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직 워십에서 훈련을 이끌 자신감이나 능력이 구비되지



샘 핼켓 목사는 그가 캐나다 성공회 교회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사스캐치원 북부에 있는 우즈 크리 사용자들을 위한 성경번역이 시작되는 것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과 성경번역 사역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나스카피 성경번역 위원 중에 한 명인 실라 나비니카부Silas Nabinicaboo는 자신의 20년 경험을 토대로, 다른 원주민 사역자들에게 조언한다. “하나님께서 번역사역을 위해 힘주시고, 용기주시길 기도하십시오. 혹시 번역하다 어떤 단어를 풀지 못해 고민한다면, 마을의 원로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사실 원로들이 나보다 훨씬 더 우리말을 잘 알거든요.”

실라는 말끝에, 성경번역선교야 말로 어떤 어려움도 감수해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 자기 말로 번역된 말씀이 결국 우리 신앙을 깊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머리로도 마음으로도요.”

지금은 겨우 시작

안세위치 선교사 부부는 북부 알버타 크리어와 스윙피 크리어에도 성경번역을 위한 비전이 심겨지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언어 그룹에는 아직도 자발적인 성경번역 위원회나 훈련 받은 성경번역 사역자들이 세워지지 않았다. 사실 그 두 가지가 그들 스스로 성경번역을 책임지고 해가는데 결정적이다. 그래서 노마 진은 열심히 기도한다. “주님, 주님이 문을 여셔야만, 저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즈 크리어 번역작업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다. 장차 번역 사역에 주요 역할을 담당할 사람은, 사스캐치원 주의 프린스 알버트 가까이에서 성공회 교회를 섬기는, 샘 핼켓 목사Rev. Sam Halkett이다.

핼켓 목사는 오래 동안 자기 부족어를 가르친 열렬한 교사였고, 주일에는 세 교회의 예배를 책임 진다. 영어 성경으로는 자기 민족이



루디아 목사는 포플라 힐 기숙사 학교를 떠날 때, 유럽인들의 문화가 자신의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주입 받았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오지-크리 언어와 문화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고, 자기 부족이 하는 모든 일에 오지-크리어가 사용되도록 힘을 다하고 있다.

피상적인 기독교신앙만 얻을 수 있을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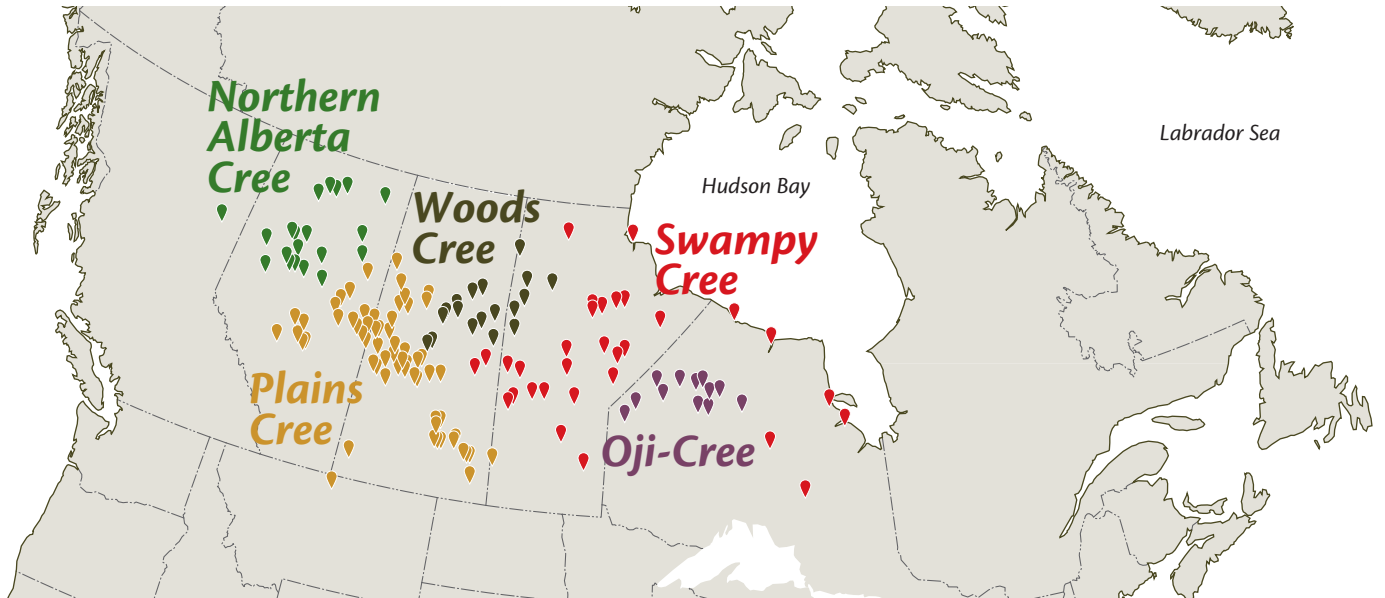
“우리말이면 전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참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된 말씀의 능력은 우리 생각의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원주민으로서 우리 자신들에게 더 의미 있고 적절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그 영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언어 가운데 계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되시는 거죠.”

핼켓 목사는 자기 민족에게 마음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성경번역 위원회가 세워지길 기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성경번역

오지-크리어는 나머지 언어들보다 번역이 가장 늦게 시작되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비전을 품은 사람은 루디아 마마와 주교 bishop Lydia MaMakwa 이다. 마마와 주교는 캐나다 성공회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순수 원주민 교구인 미샤미코웨시Mishamikoweesh 교구의 영성 사역 담당으로, 온타리오 북부 킹피셔 레이크 지역에서 현재 6 명으로 구성된 모어 성경 번역자 팀을 이끌고 있다. 마마와와 다른 한 성경번역 사역자는, 자기 모어로 말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던, 원주민 기숙사 학교를 경험했다. (16쪽 이야기 참조)

2015년부터 든든한 성경번역 위원회를 배경으로 지금까지 2000 구절 이상을 번역했다. 이 구절들은 주일 예배 때 읽는 교독문들이다. 예전에는 다른 크리어로 읽어서 오지-크리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비로소 자기 말로 읽게 되어 모두 반기고 있다. 마마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해요. 우리 말 성경이 훨씬 더 분명하게 메시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해준다고요. 정말 말씀이 생생해요.”



그녀의 동생 십보라는 오지-크리어로 된 성경이 자기 언어를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언어 교사로서 우리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소속감과 안전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확실히 믿어요. 우리말이 없으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 언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플레인즈 크리어의 진척 상황

지난 프린스 알버트에서의 열린 원주민 지도자들과 위클리프와 캐나다 성서공회의 모임에서 플레인즈 크리 성경번역이 다른 크리 언어들과 함께 우선적 번역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플레인즈 크리어 번역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플레인즈 크리어는 캐나다 안에 있는 크리 어군 중에 가장 큰 어족으로, 1970년대부터 위클리프, 캐나다 성서공회, 원주민 지도자들이 모두 이 언어의 성경번역에 힘써 왔다.

1980년대에는 크리어 사용자와 성공회교회 주교인 스탠 커텐드 Stan Cuthand가 현대 플레인즈 크리어로 번역을 시작했다. 그는 신약 성경 전부와 구약 성경의 절반에 대한 초벌 번역을 완성했다. 더 나은 양질의 번역을 얻기 위해 검토하고 보완하는 과정에 더 많은 크리어 사용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많은 워크숍이 열렸다.

돌로리스 샌드 Dolores Sand와 게일 위니 Gayle Weenie는 사스캐치원 주의 사스카툰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중점 사역은 여러 크리 언어를 사용하는 원주민 공동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으며, 이 검토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캐나다 성서공회 사역자 룯 히그가 이 팀의 성경번역 자문 위원이자 번역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섬겨 왔는데, 최근 그녀가 은퇴함에 따라 이 역할들을 채워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샌드와 위니는 둘다 은퇴한 선생님이로, 커텐드의 초벌 번역에서 번역의 정확성과 분명한 의미 뿐만 아니라, 철자와 문법까지 정말 고통스러운 정도로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사스캐치원 주의 크리 마을에서 자라난, 이 두 구교 평신도 지도자들은 크리어를 사용하는 동족들에게 자기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기위해 열성을 다하고 있다.

샌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공동체들 안에는 어떤 공허함이 있는데, 그 공허함을 채우려면, 우리 아이들이 창조주를 찾아야 합니다. 전 이것이야말로 성경번역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후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할수 있는 길입니다. 물려 줄 유산입니다.”

위니는 성경 번역 사역이 기숙사 학교의 폐해를 뒤집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부모들은 어린 아이였을 때 기숙사학교에 끌려가 플레인즈 크리어로 말하는 것을 금지 당했다. 사실 언어란 그 구성원들을 자신이 속한 문화에 인격적으로 연결해 주는 고리와 같은 것인데, 캐나다 정부는 당시 기숙사 학교의 원주민 아이들이 모어로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아이들을 그들이 속한 문화에서 끊어내려한 짓이었다고 한다. “그 일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데요... 결국엔 우리가 이기고 있잖아요. 아직도 제가 우리말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 줄 거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고 생각해요.”

번역검토작업이 진전되고 성경이 배포되면서, 플레인즈 크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읽혀지는 걸 보는 게 이 두 동료의 소망이다. 히그 선교사가 힘주어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 모어로 된 복음에 가장 잘 반응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캐나다 안의 많은 원주민들이 여전히 토착어를 자기 모어로 사용합니다.”

전래본성경(Legacy Bible)의 개정

샌드는 히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1860년대 만들어지고 지금은 절판된 메이슨 크리어 성경 Mason Cree Bible 본문을 캐나다 성서공회에서 만든 크리어 자판으로 다시 타이핑 해 놓은 성경을 검토하고 있다.

빌 안세위치즈 선교사는 이 전래본 성경이 아주 귀하게 대접 받는 면에서, 영어 성경으로 따지면 킹 제임스 성경과 같다고 한다. 다양한 크리어가 각 지역마다 사용되고 있음에도 어디를 가든 이 전래본 성경을 발견하게 된다. 빌은 말한다. “이건 소위 모든 ‘인디언’들의 성경입니다.”

이 전래본 성경은, 윌리엄 메이슨 William Mason 목사아 크리



웍샵 도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돌로리스 샌드와 게일 위니. 전래본 성경에서 현대 플레인즈 크리 어로 개정된 성경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둘 모두 은퇴한 교사들이자 로마 카톨릭 평신도 리더들인 그들은 자신들이 작업한 성경이 후세들에게 물려줄 귀한 유산이 되리라 믿는다.

혼혈인 그의 아내 Sophia가 마니토바에 있는 노르웨이 하우스에서 1862년에 번역했다. 지금은 고어가 되어버린 캐나다 “대평원”에 살던 크리 어 사용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후 1908년, 존 맥케이 John Alexander Mackay 목사가 개정했고, 그 개정판이 다시출간 되었다.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크리 원주민들은 이 메이슨 성경을 예배 시간에 읽었고, 교리 교사들, 집사들, 평신도 리더들과 목회자들이 각 지역의 크리어로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날수록 더 젊은 세대들이 고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음절 단위 크리 알파벳을 읽고 쓰지 못하게 되었으며, 전래본 성경은 더 이상 크리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메이슨 크리 성경의 위상 때문에, 크리 원주민들에게는 캐나다 성서공회를 통해 이 성경을 재간행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었다. 이 성경은 전자 편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들에게 검색과 조화가 가능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배상의 기회

어떤 모양으로든 이 성경번역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크리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들은 캐나다 내 의 그리스도인들이 위클리프 캐나다를 포함하여 여러 경로로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십보라 마마와는 번역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알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캐나다교회에서 원주민 성도들과 공동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우리가 받은 도움과 후원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맥도널드 주교는 크리 성경번역 운동에 대한 비원주민 기독교인들의 후원은 과거 원주민들이 겪은 학대에 대해 캐나다 교회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배상의 기회는, 캐나다 내 모든 교회들에게 복이 되고 발전이 되는, 부흥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Dear Diary

크리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들을 위한
웍샵 참관기

웍샵에서는 어떤 일들이...?

2016년 4월 24일, 주일

사스캐치원 주에서 퀘벡 주에 이르기까지 캐나다 전역으로 부터 수 천 킬로가 떨어진, 매우 외딴 지역으로 부터 도착한 12 명의 원주민 성경 번역자들은 온타리오 주 구엘프에 있는 기독교 수련원에서 모였다.

이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들은 앞으로 5일 간, 워십을 이끄는 스탭들로부터 훈련과 격려를 받게 된다. 스탭들은 위클리프 사역자인 빌과 노마 진 안세위치, 이 워십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캐나다 성서 공회에서 온 릿 히그와 마일즈 리치, 위클리프 번역 자문위원 훈련을 받고 있는 맥 빌링슬리, 또한 원주민 공동체 내에서 성경번역 프로젝트 조력자로 섬기기 위해 준비 중인 위클리프의 매트와 캐이트린 원저 등이다.

크리 원주민 성경번역 운동 팀이 함께 모인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네 가지 크리 언어 번역 팀이 각자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성경번역 프로젝트들을 계속 잘 해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참여한 팀은 플레인 크리, 우즈 크리, 오지 크리 팀과 나스카피 팀이다. 분주한 한 주가 기다리고 있는 터라, 참가자들은 저녁에 라운지에서 만나 교제를 나누는 후 모두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2016년 4월 25일,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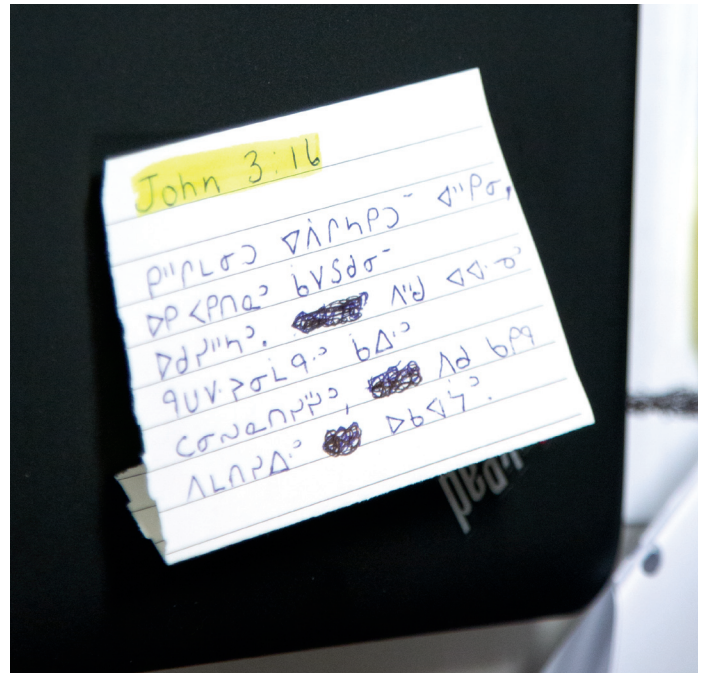
모두 수련원 회의실에 모여 컴퓨터를 켜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9시 30 분이네요, 다들 모이셨군요.” 워십을 인도하고 있는 빌 안세위치가 하루 세션을 연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번 주 내내 드렸던 다른 예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나스카피어로 “거룩, 거룩, 거룩” 찬양을 드리며 시작한다. 오전 예배는 창세기 2장을 나눈 후, 요한복음 1장, 시편 8편을 이미 번역되어 있는 만큼, 함께 모인 원주민 번역자들 각각의 언어로 함께 읽었다.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들은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 바로 언어를 사용하셨고 창조 이전에도 이미 언어(말씀)가 있었다’ 는 구절을 읽는다. 빌은 이 말씀이 이들 원주민성경 번역자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물었다. “창조주께서 가치있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참석한 두 명의 플레인 크리 번역자 중 한 사람인 돌로레스 샌드가 대답했다.

온타리오 북부의 오지-크리 성경번역 팀원인 릿 키체케식을 포함한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들이 서로 자신들을 소개했다. 릿은 “열 살 때 기숙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우리 말을 거의 잃을 뻔 했었어요, 다시 내 언어를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 간 시간이 걸렸지요. (16쪽의 이야기 참조)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역사역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돕는 일입니다.”

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과 그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상기시키며 성경 번역의 기초에 관한 강의를 이끌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지역의 문화 속에서, 그 지역의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예에서 잘 나타났다.

마일즈는 캐나다 성서 배포를 담당하고 있는 캐나다 성서공회를 대표해 ‘메가보이스’(MegaVoice)라는 오디오 성경 플레이어를 선보였다. 그는 원주민 번역자들이 몇 개의 메가보이스 기계에 이미 번역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여러 크리 언어로 담아 가서, 마을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 것을 제안했다.

빌은 성경 번역 원칙들에 관한 강의에서, 성경 번역에는 기본적으로 두 부분이 있음을 설명했다. 첫째 부분은 원본이 되는 언어의 의미를 확실히 결정하는 것이고, 둘째 부분은 번역하고자 하는



[왼쪽 페이지] 목요일 오후 크리 원주민 성경번역자들을 방문하여 함께 교제한 캐나다 한인 교회 성도들 중 고하나 사모와 십보라 마마과가 함께 포옹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상단 사진] 참석한 크리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 중 한 사람의 노트북 컴퓨터에 붙어 있는 요한복음 3:16절 말씀. 여기 모임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들이 그토록 애쓰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언어로.

[하단 사진] 마일즈 리치 선교사가 '선과 악'이라는 성경 만화책을 보여주며, 크리어를 사용하는 원주민들이 더 성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책을 크리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언어로 그 의미를 다시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3 장 31절에서 예수님은 헤롯왕을 여우로 묘사하셨다. 이는 헤롯이 털이 많은 네 발 달린 동물이어서가 아니라 여우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 교묘하고 교활하게 술수를 쓰는 것과 같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나스카피 성경번역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하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팀원 중 한 명인 치우텐 바천이 씩 웃으며 “올버린이 더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디오에서 한 원로가 정부를 올버린에 비유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워킹 첫 날은 각 팀별로 번역한 내용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끝났다. 빌이 우드 크리 성경 번역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한 샘 헬켓에게, 일반 컴퓨터 자판에서 크리에어 사용되는 음절 알파벳을 타이핑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2016년 4월 26일 화요일

빌은 이날 아침 로마서 15:4절 (여러 다른 크리 언어로 읽었다) 로 기도회를 나누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와 주시는 격려를 통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없는 퍼스트 네이션 지역에 대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빌은 최근 제임스베이 근치 아카와피스켓의 자살 경보를 언급해 말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마일즈는 성경번역의 기본을 더 가르쳤다. 이번에는 이론 중에서 소통 과정의 노력, 이득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성경번역의 갈등이 있는데 본문이 너무 어려워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거나, 너무 쉬워서 읽는 이들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거나 모두 흥미를 잃게 된다고 했다. 성경이 이해하려면 성경번역자들은 읽는 이들이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파악하려하지 않아도 충분한 이익을 경험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초청강사 스티브 캠프(위클리프의 번역 자문위원)가 성경번역에서 여러 종류의 이름을 어떻게 다룰까에 대해 1, 2부 강의를 시작했다. 어떤 이름들은, 그 이름의 히브리, 헬라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목표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다른 이름들은 번역팀이 영어 스펠링을 빌어오던지 문자를 빌려 표현(그 언어의 글자체계 규칙을 따라 상황에 맞춰)을 해야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나스카피의 예를 들면, 아담은 아담(☒☒☒)으로 번역된다. 성경에 나오는 수천가지 이름을 놓고 보면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지-크리에어 번역을 유도하는 십보라 마마과는 “번역을 다 했을 때 우리 모두 백발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재담을 한다.

마일즈는 크리에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선과 악이라는 도표 소설을 통해서다. 이 330쪽짜리 책은 성경메시지를 연대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마일즈는 만화책처럼 다르게 표현된 이 시도가 크리 공동체에 유익이 될까 물었다. 워크샵에 참여한 몇 사람은 이에 수긍했다.

둘째 날을 마치며, 빌은 ‘파라텍스트’(ParaText)를 이용해 그룹을 인도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성경번역자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는데, 초번역을 검토할 때 성경 원어, 여러가지 다른 번역과 도움되는 재료를 제공한다. 참가한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들이 “이야”와 “흠” 탄성을 지른다. 그들이 새로 중요한 것들을 배웠다는 표시다.

저녁식사 후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들이 몇 대의 자동차로

쇼핑몰에 가서 청바지부터 운동화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샀다. “우리 동네에는 이런 가게가 없어요”, 쇼핑백을 자기 방으로 나르던 루스 키체케식과 오지-크리 동료들이 설명한다.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마일즈는 고통과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에 대해, 정신이 번쩍들게 하는, 그렇지만 또 격려가 되는 말씀 묵상을 나눴다.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언어로 만드는 성경번역 사역자들을 무척 미워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천국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 일을 계속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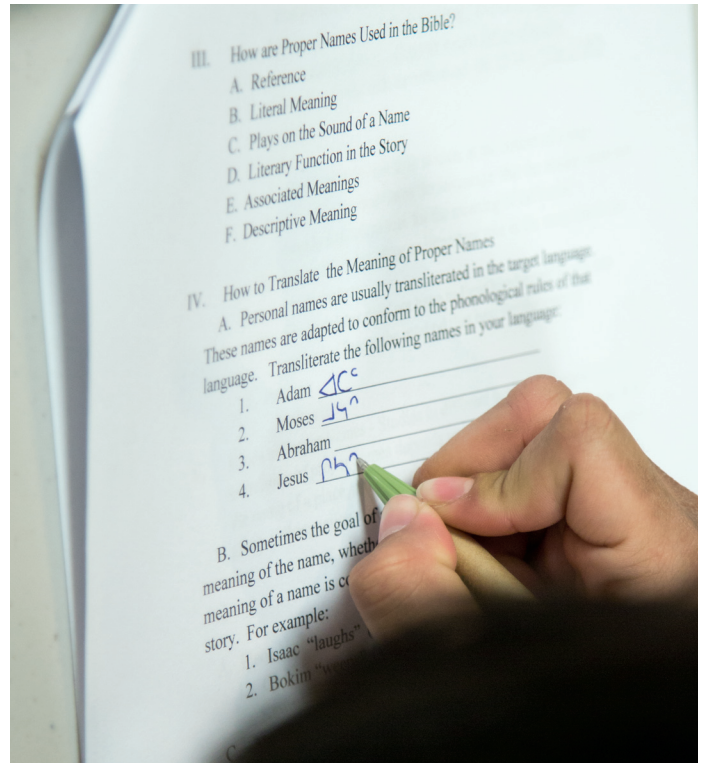
CBS 동료 루스 히그 선교사가 성경번역 기본에 관한 강의를 이끈다, 이번에는 주요 개념들을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성경의 용어들을 다른 크리에어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예로 들어주었다. 히그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성경번역 사역자로서, 성경의 저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개념이 무엇인가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지, 대상 언어의 개념과 구성에 맞게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날 오후 빌은 크리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들에게 성경번역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의 언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할 때 도움이 되는 에스아이엘 자료를 소개해 주었다. (SIL,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위클리프 선교사들이 선교현지에 나가서 실제로 성경번역을 할 때 소속되는 기관으로,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는 실제로 SIL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외부인들이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들이 성경번역 프로젝트의 주인이 되어(ownership)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은 예전에 자신과 부인이 현지인 지도자들과 함께 섬겼던, (그리고 지금은 자신들 스스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퀘벡 주의 나스카피 언어 프로젝트를 그 예로 들었다. 나스카피어 신약성경이 출판되어 교회에서 쓰이고 있으며 지금은 구약번역이 진행 중이다. 게다가 나스카피어로 사전이 완성되었고, 전설과 이야기 수집 프로젝트, 나스카피 어 문법 정리, 어린이와 어른의 문해 (글을 읽고 쓰기를 배우는) 교실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나스카피) 공동체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빌은 나스카피 성경번역 팀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서, 다른 성경번역 팀들에게 도전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도록 서로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일부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빌은 알공퀸 언어군에 소속된 언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함으로 하루 세션을 마쳤다. 이번 워크샵에 참여한 원주민들의 언어들이 바로 알공퀸 어군에 속한다. 빌은 그 예로서 토끼, 늑대, 칼 같은 단어들은 대평원과, 캐나다 미국 중부 및 동부지역에 걸쳐 있는 모든 언어에서 아주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오지-크리와 나스카피 사람들이 서로의 성경을 일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

(다음 뒤 페이지에서 계속)



[왼쪽 위 사진] 빌 안세워치 선교사가 짬짬이 시간을 내어 일대일의 시간을 갖고 있다. 샘 핼켓 목사가 일반 컴퓨터 자판으로 어떻게 음절 단위로 된 크리어 알파벳을 타이핑 하는 지 가르치고 있다.

[오른 쪽 위 사진] 성경번역 자문 위원인 스티브 켄프가 인도했던 성경의 고유 명사를 다루는 세션에서, 참가자 중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자기 언어에서 소리나는 대로 적고 있다.

[하단 사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 돌리스 샌드(컴 원편의 사역자)가 동료 게일 위니와 함께 평원 크리어로 번역된 성경의 일부분들을 룯 히그와 함께속 점검하고 있다. 룯은 캐나다 성서공회 소속으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이자 성경번역 자문위원이다.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어제처럼 오늘 기도회도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평일 크리어로), 북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의 성경번역 역사, 그리고 성경번역 훈련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위클리프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 팀의 윤기태 이규준 선교사의 초청으로, 저 멀리 에드먼턴에서까지도 찾아온 여러 한국교회의 7명의 대표들이다. 두 선교사들은 캐나다 내의 한인 교회들이 점점 더 성경번역 선교를 비롯한 다양한 원주민 선교 사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했다. 캐나다의 한인 교회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원주민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첫째, 캐나다 원주민들은 동북아 사람들과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둘째, 어린 원주민 학생들이 악명 높은 기숙사 학교에서 당했던 것처럼, 한국인들도 일제 시대 때 자신의 모국어 사용을 금지당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동질감은 에드먼턴 안디옥 교회 최병권 집사가 자신을 소개할 때 분명히 확인 되었다. “여러분은 우리 동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하십니다. 저의 목적과 비전은 모든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모든 나라가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인 손님들은 크리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들에게 그들의 공동체와 성경번역을 비롯한 그들의 언어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 지를 물었다. 기도요청 제목들은 심각했다: 사회문제, 중독, 자살, 질병, 그리스도를 통한 더 큰 화합, 청소년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성경번역 사역의 진보를 위한 더 많은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들을 위한 워킹 등이었다.

그들의 진솔한 나눔에 감동된 한인들은 즉석에서 기도하길 원했고, 워크숍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하는 중보 기도를 다짐하는 듯, 큰 원을 그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다. (https://youtu.be/tSPrz_S-Elw) 방문을 마치고 한인들은 원주민들의 성경번역 운동을 돕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이 반나절의 아침 시간은 모든 사람이 출발하기 전에 워크숍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맥은 아침의 말씀 묵상 시간을 인도했고, 빌은 성경번역의 기본에 대해 좀 더 가르쳤다.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들은 워킹에 참여한 증표로 수료증을 받았고, 다음 워킹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평가서를 작성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족의 마음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급해 주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격려를 받고, 더 잘 구비되고, 도전을 받고 각자의 마을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크리 원주민 성경번역 운동을 위한 기도 제목

모어로 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주어 진정으로 사랑하고 제자로 섬길 수 있게 하는 성경이 없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대사로 소개했던 사도 바울처럼, 많은 선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업에는 복음을 아는 자들이 그것을 퍼뜨리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것처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속히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살후 3:1”

하나님의 메세지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종족들은 모어, 즉 그들의 마음의 언어로 된 성경이 필요합니다. 이 잡지에 특집으로 실린 여기 캐나다의 다섯 개 크리 언어를 포함하여, 이곳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의 언어로 된 성경이 필요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크리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안녕을 위해

크리어 성경번역 프로젝트를 위해 북쪽의 고립된 지역들을 여행할때 드는 비싼 경비의 재정적 충당을 위해

내년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 워킹을 위해 (2017년 4월) - 알맞은 스태프, 알맞은 원주민 참가자들, 워킹 내용, 여행을 위한 기금과 안전, 효과적인 가르침 등을 위해.

원주민 성경번역 팀원들, 조력자들(선교사들)과 성경번역 단체 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일치성을 위해

그들 스스로 성경번역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는 열망이 있고, 성경번역 사역이 필요한, 다른 캐나다 원주민 공동체들을 위해서도 성경번역의 문이 열리고, 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가 있도록

이 공동체를 위해 이미 부름받고 섬기려 하나 아직도 재정 지원이 부족한 위클리프 선교사 가정을 위한 적절한 재정 후원과, 현재와 미래에 크리 원주민 성경번역 운동의 필요를 채울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 주시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재정과 인력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프로젝트에 잘 분배하도록

